
◆ 헝가리수출보험공사, 2005년도 업무실적 발표

헝가리수출보험공사(The Hungarian Export Credit Insurance)가 2005년도 업무실적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및 단기보험에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여 중장기보험 인수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48.6억 HUF³⁾(6,970만 달러)였으며 단기보험 인수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한 2,523.9억 HUF(11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장기보험으로 지원한 주요 수출대상국

은 러시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이었으며, 단기보험으로는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지원하였다.

2005년 말 기준 헝가리수출보험공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한 87억 HUF(4,000만 달러)이며, 영업이익은 전년 보다 62.8% 줄어든 5,900만 HUF(2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1〉

헝가리수출보험공사 업무실적

단위: 백만 HUF

	2005	2004
중장기 보험	14,864.9	11,352.0
단기 보험	252,386.5	243,995.0

주: 인수액기준

〈표 2〉

헝가리수출보험공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HUF

	2005	2004
총자산(Assets)	8,704.9	9,551.5
총부채 및 준비금(Liabilities, Reserves, Provisions)	2,322.8	3,220.3
총자본(Equity)	6,382.1	6,331.2
영업 수익(Ordinary Business Income)	2,053.3	2,314.3
영업 비용(Ordinary Business Expenditure)	1,994.3	2,155.7
순영업 이익(Ordinary Business Profit)	59.0	158.6

【안 선 우】

◆ 덴마크 EKF/네덜란드 Atradius, 국가익스포져 교환을 위한 스왑계약 체결

덴마크 ECA인 덴마크수출신용기금(EKF)과 네덜란드 공적수출신용 운용회사인

Atradius⁴⁾가 최근 국가익스포져(Country exposure) 상호교환을 위한 스왑계약을 체

3) Hungarian Forint, 2005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은 0.004689 \$/HUF.

4) 네덜란드 정부는 중장기수출보험 업무를 민간보험회사인 Atradius에 위탁. Atradius내 수출보험 담당부서는 Dutch State Business임.

결하였다. 본 스왑계약을 통해 EKF는 Atradius에 5,000만 달러 상당의 베트남 및 자메이카 익스포저를 양도하고, Atradius는 그에 상응하는 인도네시아 익스포저를 EKF에 양도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 계약을 통해 특정국가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 포트폴리오를 합리화하고, 해당국가에 대한 자국기업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자메이카 대형인프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네덜란드에

서는 인도네시아 앞 선박수출이 많은 조선업체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tradius는 9월 초에도 스위스 민간보험회사와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9,900만 달러의 재보험계약(Reinsuranc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2006년 말까지 계약액을 1억 4,000만 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진 희】

◆ JBIC, 브라질 국영석유공사 발행 채권에 보증 제공

JBIC은 2006년 9월 브라질국영석유공사(Petróleo Brasileiro S.A.)의 자회사인 Petrobras International Finance Company가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발행된 채권은 총액 350억 엔의 사모외채로서 JBIC은 채권의 원금전액과 일부이자에 대해 보증하였다. 본 채권발행에 노무라증권 및 미쓰비시UFJ증권이 공동주간사로 참여하였고 채권의 관리자로서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참여하였다. 본 채권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Petróleo Brasileiro S.A.의 유전개발사업을 위한 해저파이프라인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JBIC의 개발도상국 발행 국공채 보증업무는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통합되면서 신설된 업무이다. 2000년 6월 필리핀의 Philippine National Oil Company-Energy Develop

ment Corporation (PNOC-EDC)가 발행한 220억 엔의 사무라이채권에 대해 원금 및 5년간의 이자에 대한 보증제공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한국중소기업이 발행한 100억 엔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중 선순위채권(77억 엔)에 대해 JBIC이 2차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JBIC의 보증공여로 Petróleo Brasileiro S.A는 1997년 이후 9년 만에 동경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JBIC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및 동경시장을 포함하는 아시아지역 내 채권시장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해외발행채권 지원은 일본 금융기관 등에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엔화 외채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은 진】